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주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내년도 신규 사업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시 주요사업이 최대한 반영되고 삭감되지 않도록 기재부 및 관련 부처를 방문해 94건의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전북지역 국회의원실과 전북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정치권과

세종시 현장보고회 개최... 기재부·관련부처 방문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공략에 나섰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전주 세계전통문화엑스포 개최, 호남의 관문 전주 역사(驛舍)의 전면개신 등 전주시 주요현안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예결 위원들에게도 전주시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로 제

출되는 9월 이전 좀 더 책임감 있고 성과 있는 예산 설득작업을 벌여 최대한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또 국회단체까지 노력해 국가예산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시장 주재 현장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북연

고 국회의원 등 22명에게 상임위와 지역구를 고려해 국가예산 쟁점사업 21개에 대해 전담사업을 요청하는 등의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사업 및 SOC 역제 기조가 계속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연고 국회의원과 등 다방면의 정치권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레지오넬라균 감염주의보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4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냉방기 사용이 많은 6~9월에 주로 발생한다.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전신관대감,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과 건성 기침, 오한, 고열, 발열, 흉통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5~20%의 치명률을 보이는 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레지오넬라균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현재 까지 대형쇼핑센터와 병원, 분수대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수계 시설에 대한 소독조치와 재검사를 실시하고 예방 및 관리 교육을 강화했다.

시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면서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점검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혁신도시, 시내버스타기 편리해진다

해당지역 경유 시내버스 노선 대폭 늘릴 계획 시, 호자4동·혁신도시 주민 대상 노선개편 설명회



전주시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주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도록 해당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대폭 늘릴 계획인 가운데 4일 호자4동(서부신시가지)과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완주 노선개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전북혁신도시가 버스타기 편리한 지역으로 거듭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주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도록 해당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내버스 증편은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시민들의 교통수요 변화가 가장 큰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완주군 기간선제 시범도입과 함께 이번 노선개편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동산동-혁신도시-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노선축과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서학동을 연결하는 노선축을 신설하는 등 혁신도시 방문 시내버스가 더 많아진다.

현행 노선개편안에 따르면 노선수는 8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운행대수는 34대에서 52대로 18대 증가한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인 일일 운행횟수는 기존 편도 306회에서 549회로 243회(80%) 증가하게 된다. 평균 배차간격도 현행 115분에서 68분으로 47분이나 감소한다.

우선적으로 시는 기존 혁신도시 방면 버스노선인 72번과 165번은 그대로 운행하고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165번 노선의 경우는 호빈2차APT와

우미린2차APT까지 연장 운행돼 거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규노선으로는 이서~혁신도시~동산동~전주시내~아중리로 이어지는 102번 노선과 삼천동~혁신도시~전북대~호자동을 연결하는 순환7번 노선이 배차간격 20분 내외로 운행될 예정이다.

특히 순환7번 노선이 신설되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 전북대까지 20분만에 갈 수 있게 돼 기존 165번을 이용할 때보다 50분 정도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완주군 이서지역 기간선제 도입으로 이서간선1, 이서지선5, 이서지선6이 혁신도시를 순환하게 되며 혁신도시 내부이동과 완주군 및 전주대 방면으

로 다양한 노선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호자4동(서부신시가지)과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선개편 설명회를 가졌으며 오는 5일과 10일에는 각각 삼천3동과 금암2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시 홈페이지와 시내버스 관련 페이스북, 120번 콜센터 상담, 노선개편안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주시 최종안을 확정 후 완주군과 협의해 노선개편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노선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뒤통 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앞서 관소리 부문 참가자로부터 뒤통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국악인 이모(6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제)로 정모(45·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재 기자

뇌사 50대 여성 전북대병원에 장기기증

뇌사판정으로 신장1개 기증... 만성질환자 새생명 선물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만성질환자 1명에게 새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

4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지난 2일 뇌사판정을 받은 오세옥(59)씨가 신장 1개를 기증해 만성질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1997년 심장수술을 받는 등 몸이 약했던 오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한 장기를 기증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가족들은 뇌출혈로 치료를 받아오던 오씨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자 오씨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지난 2일 뇌사판정을 받은 오씨의 신장 1개를 만성질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오씨의 가족들은 "몸이 약해 지병을 앓아오면서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껴왔고 그러기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셨다"면서 "장기를 기증받은 분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유희철(간담쇄이식외과) 센터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 준 고인과 유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가 고인의 송고한 뜻을 기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주 36.6도... 전북 폭폭 찌는 '가마솥 더위'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폭폭 찌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낮 최고기온은 완주 36.6도, 익산 35.2도, 정읍 35.1도, 군산·무주 34.5도, 고창 34.4도, 전주 34.0도 등을 기록했다.

전북에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와 정읍, 익산, 완주, 임실에 폭염특보가 군산과 김제, 남원, 고창, 부안, 무주, 장수, 순창, 진안에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진 상태다.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일

부 지역에서는 열대야(최저기온 25도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노약자와 밀산부, 어린이 등은 낮 시간대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